

북한 주민의 식생활

Dietary Life of North Korean People

정은미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은 정권 9년 동안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양적·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음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국내외의 통계 등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구의 대다수가 하루 세 끼 식사를 하며 쌀 소비량과 고기 섭취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났다. 북한의 국내 곡물 생산량은 국내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히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곡물 및 식료품 수입의 증가, 시장 구매력의 증가, 그리고 가전 제품의 보유 등은 북한 주민의 식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2020년 이후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혔듯이 올해는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북한의 식량안보는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나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같은 외생 변수의 영향에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국경 봉쇄로 인한 대외 무역의 급감은 북한 주민의 식생활 불안정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식량 접근성을 높이려면 식량 지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1. 들어가며

올해 6월 15~18일에 개최된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태풍의 피해로 농업 부문의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여 현재 북한 주민들의 식량 형편이 어렵다고 직접 언급하였다. 북한 농업 전문가

인 권태진은 지난해 가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440만 톤에 불과했다며 연간 식량 수요량인 575만 톤 대비 올해 135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 부족량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권태진, 2021). 북한 당국 역시 올해 6월에 유엔에 제출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이하 VNR 보고서)에서 2020년의 경우 잇단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총생산량이 전년의 665만 톤에서 552만 톤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1).

국내 식량 생산량의 감소와 함께 지난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으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곡물 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것도 올해 식량 부족 상황을 더 심각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북한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은 2019년 1억 5천4백만 달러였으나 2020년에는 3천7백만 달러에 그쳤다. 다시 말하면, 2020년의 곡물 수입량은 2019년의 수입량의 약 24%에 불과한 셈이다. 이처럼 지난해 국내 곡물 생산량의 감소와 급격한 곡물 수입의 감소가 올해 심각한 식량 부족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의 식생활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계다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북한 주민의 식량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 데일리엔케이(DailyNK)가 보도하고 있는 '북한시장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16일 기준으로 접경 도시인 혜산의 경우 쌀 1kg의 값이 6,300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동월에 쌀 1kg의 시장 가격이 4,5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사이에 상승률이 매우 높다. 쌀값의 상승은 특히 저소득층의 식량 접근성을 제약하게 된다. 이처럼 북한 주민의 식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데는 코로나19의 비상방역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 당국 역시 6월에 개최된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비상방역의 장기화로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을 다뤘다.

이 글은 김정은 정권에서 북한 주민의 식생활 실태를 살펴보고, 식생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글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이 발생하기 이전 시기까지의 북한 주민의 식생활을 분석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의 식생활 실태는 다루지 않음을 밝혀 둔다. 김정은 정권에서 어떤 요인들이 북한 주민의 식생활을 개선시키거나 악화시켰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식생활 안정 또는 불안정의 발생 요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 이 글은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식량 부족의 발생 원인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식량 부족을 해소하는 데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대응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우리 정부의 정책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2. 북한 주민의 식생활 실태

북한 주민의 식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다만 북한의 농수산업 및 식료품 가공 산업의 생산 현황에서 간접적으로 북한 주민의 식생활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거시 경제 통계만으로는 북한 주민의 일상적인 식생활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종종 일부 연구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자료에서도 북한 주민의 식생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표본의 대표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조사는 거시 경제 통계가 보여 줄 수 없는 다양하고 세밀한 북한 주민의 식생활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점에서 자료로서의 유용성을 지닌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설문조사 실시 직전 연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을 표본으로 구성하여 매년 실시한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 주민의 식생활 실태의 장기 변화를 보여 주고 있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¹⁾ 이 조사는 식생활과 관련하여 하루 식사 횟수, 주식의 구성, 고기 섭취 횟수, 식생활 종합 실태 평가 등의 설문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루 식사 횟수에서 ‘하루 세 끼 이상’의 응답률은 응답자의 탈북 연도를 기준으로 2012년 81.1%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5년에 89.9%로 정점에 올랐다가 이후 서서히 하락하여 2019년에는 83.5%를 나타냈으며, 반면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많았다’는 응답률은 평균 1% 미만을 나타냈다(김학재 외, 2021). 이 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김정은 정권에서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하루 식사 횟수만으로는 식생활의 질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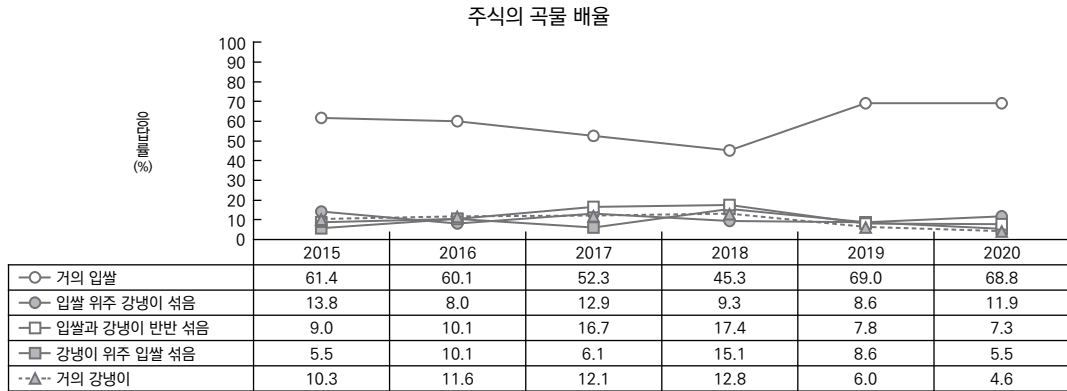
주식의 곡물 배율과 고기 섭취 빈도의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활용해 북한 주민의 식생활을 질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우선, 주식의 곡물 배율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그림 1]에서 보이듯이 ‘거의 입쌀을 먹었다’는 응답의 비율은 2015년 조사에서는 61.4%로 나타났는데 2020년 조사에서 68.8%로 상승했다. 이 결과는 북한 주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쌀밥을 먹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거의 강냉이로만 먹었다’는 응답의 비율은 2015년 조사에서 10.3%였는데 2020년 조사에서는 4.6%로 감소했다(김학재 외, 2021). 이 결과만으로 판단했을 때 김정은 정권에서 쌀이 전혀 섞이지 않은 강냉이만으로는 밥을 먹는 주민들의 비중은 매우 작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의 곡물 배율만으로 북한 주민 식생활의 질적 평가를 온전히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2012년 세 개의 국제기구들(WFP, UNICEF, WHO)이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2012년 북한 전국영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15~49세 연령대의 저체중 여성들의 경우 곡물(전분류) 섭취율은 99.6%인 반면에, 육류와 생선 섭취율은 40.4%, 계란 섭취율은 7.7%, 우유 섭취율은 2.4%에 불과해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하고 있는 ‘북한사회변동조사’는 연도별 북한사회의 변화 추이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설문조사가 실시되기 직전 연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을 표집하여 표본을 구성하는 특징을 지닌다. 예를 들어, 2020년 조사의 경우 2019년의 북한 상황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림 1. 북한 주민의 주식 곡물 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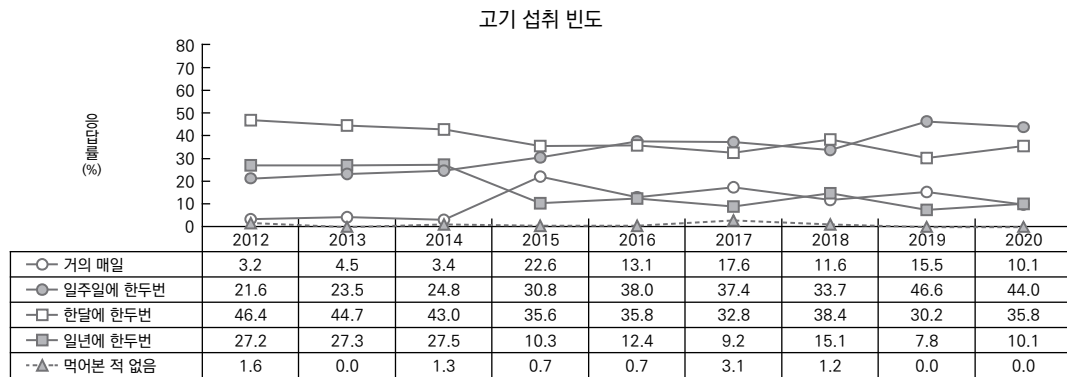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김학재 외. (2021). 북한사회변동 202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p. 40. 그림 2-2.

그림 2. 북한 주민의 고기 섭취 빈도

(단위: %)



자료: 김학재 외. (2021). 북한사회변동 202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p. 42. 그림 2-3.

(WFP, UNICEF, & WHO, 2013). 따라서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북한 주민 식생활의 질적 평가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림 2]는 2012~2020년에 조사된 북한 주민의 고기 섭취 빈도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거의 매일 먹었다'는 응답률은 2012년 조사(탈북연도 2011년 기준) 3.2%에서 2020년 조사(탈북

연도 2019년 기준) 10.1%로 상승했으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는 응답률 역시 2012년 조사 21.6%에서 2020년 조사 44.0%로 두 배 상승했다(김학재 외, 2021). ‘고기를 먹어 본 적이 없다’는 응답률은 2019년과 2020년 조사에서 연속으로 0%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기 섭취의 양적 증가는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화의 진전은 한편으로는 전체 인구의 식량 접근성을 제고시킨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매력의 격차로 계층 간 식생활 불평등을 가속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북한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층 간 식생활 불평등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계층 간 식생활 격차는 주식보다는 부식 섭취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1>은 2018년과 2019년의 계층별 고기 섭취 빈도를 비교한 것이다. 고기를 ‘일주일에 한두 번 먹었다’는 응답에서 상층과 중층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크게 증가했지만, 하층의 경우는 반대로 크게 감소했다.

2019년 기준으로 고기를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먹었다’는 응답의 경우 상층 81.8%, 중층 66.2%, 하층 6.7%로 나타나 상층과 중층 간에는 큰 격차가 없었지만, 하층의 경우는 두 계층과 확연히 큰 차이를 보였다. 심지어 하층 응답자의 30%는 ‘일 년에 한두 번’ 고기를 먹었다고 응답해 상층과 중층에 비해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현저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피볼 설문 문항은 식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이다. 위에서 살피본 하루 식사 횟수, 주식의 곡물 배율, 고기 섭취 빈도 등에서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던 것과 다르게 식생활에 대한 종합 평가의 결과는 다소 복잡하다. 표면적으로는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와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는 두 응답의 결과가 2020년 조사에서 각각 18.3%와 0.9%로 나타나 식생활의 불안정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림 3]에서 보이듯이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응답보다는 ‘가족 모두가 충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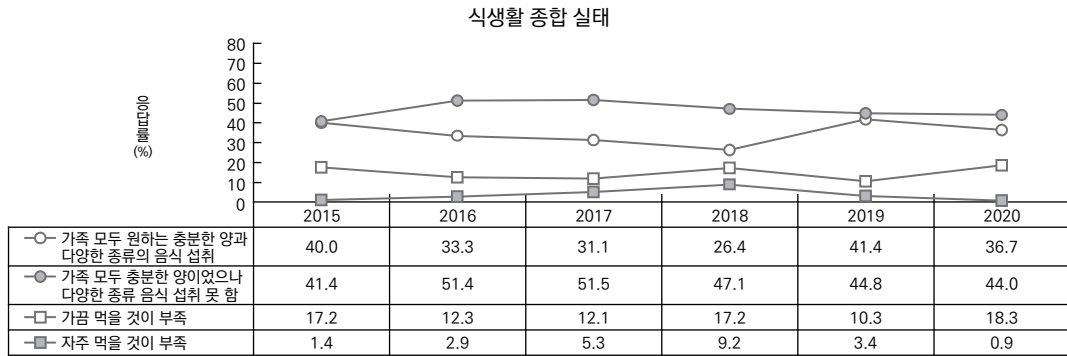
표 1. 북한 주민의 계층별 고기 섭취 빈도

| 섭취 빈도 | 상층 | | 중층 | | 하층 | |
|-----------|-----------|-----------|-----------|-----------|-----------|-----------|
| | 2018년 | 2019년 | 2018년 | 2019년 | 2018년 | 2019년 |
| 거의 매일 | 29.4 | 18.2 | 18.6 | 10.3 | 0.0 | 6.7 |
| 일주일에 한두 번 | 41.2 | 63.6 | 31.9 | 55.9 | 35.7 | 0.0 |
| 한 달에 한두 번 | 29.4 | 9.1 | 24.3 | 32.4 | 46.4 | 53.3 |
| 일 년에 한두 번 | 0.0 | 9.1 | 5.7 | 1.5 | 17.9 | 30.0 |
| 전체(N, %) | 17(100.0) | 11(100.0) | 70(100.0) | 68(100.0) | 28(100.0) | 30(100.0) |

자료: 천경호 외. (2020). 북한사회변동 2019.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p. 74. 표 2-5.; 김학재 외. (2021). 북한사회변동 202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p. 81. 표 2-3.

그림 3. 북한 주민의 식생활 종합 실태 평가

(단위: %)



자료: 김학재 외. (2021). 북한사회변동 202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p. 44. 그림 2-4.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지 못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특히 두 응답은 2015년 조사에서 각각 40.0%, 41.4%로 거의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지만 이후 두 응답의 격차는 점차 벌어져 2018년 조사에서 20.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후 두 응답의 격차는 다시 좁혀져서 2019년 조사에서는 3.4%포인트, 2020년 조사에서는 7.3%포인트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들을 종합해 보면, 2019년까지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하루 식사 횟수에서 결식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냉이밥만 먹었다는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고기를 먹어 본 적이 없다는 응답률이 0%로 나타났고,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는 응답 역시 1% 미만으로 나타났다는 점 등을 토대로 종합적

으로 평가해 보면 김정은 정권에서 빈곤층의 식생활 또한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 정권에서 북한 주민의 식생활이 부분적으로는 영양학적으로 개선되고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런던 SOAS 대학의 한국학연구센터 연구교수인 헤이겔 스미스는 북한 아동의 영양 상태가 크게 개선되어 만성적인 영양장애율은 1998년 64%에서 2017년 19%로 감소했고 급성영양장애율 역시 같은 기간 21%에서 3%로 감소했으며, 2017년 북한 아동의 영양 상태는 아시아의 다른 중간 및 저소득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설명했다(헤이겔 스미스, 2021). 북한 당국이 올해 6월에 제출한 SDGs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에서도 5세 미만 영유아의

표 2. 북한 주민의 1인당 1일 영양 공급량 추이

| 연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에너지(kcal) | 2,094 | 2,087 | 2,061 | 2,049 | 2,030 | 2,019 |
| 식물성(kcal) | 1,964 | 1,955 | 1,931 | 1,918 | 1,900 | 1,890 |
| 동물성(kcal) | 130 | 131 | 130 | 131 | 130 | 129 |
| 단백질(g) | 55 | 55.4 | 54.9 | 54.0 | 53.7 | 53.3 |
| 식물성(g) | 44.9 | 44.8 | 44.4 | 43.5 | 43.4 | 43.1 |
| 동물성(g) | 10.1 | 10.5 | 10.5 | 10.5 | 10.3 | 10.2 |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B4에서 2021. 6. 25. 인출.

발육부진 비율이 2015년 27.9%, 2018년 19.1%, 2020년 17.4%로 감소했다고 밝혔다(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1).

하지만 아동의 영양 상태 개선에 대한 국내의 일치된 견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양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 인구의 규모는 상당하며, 심지어 김정은 정권에서의 영양부족 인구의 비율이 이전 정권에서보다 더 증가했다는 상반된 통계 자료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최근에 세계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발간한 『2021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상태』(원제: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1) 보고서에 따르면, 영양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 인구의 비율은 김정일 정권 시기인 2004~2006년 33.8%에서 김정은 정권 시기인 2018~2020년 42.4%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표 2〉의 북한 주민의 1인당 1일 영양 공급량 추이 통계를 보면 김정은 정권에서 보인 식생활의 변화가 과연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

는 것으로 이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표 2〉에서 보이듯이 2013~2018년에 에너지 공급량과 단백질 공급량은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량의 경우도 6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나타난 북한 주민의 영양 공급량 추이는 앞서 자세히 살펴봤던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통해 본 식생활 실태의 결과와는 배치된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양질의 식생활이 보편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3.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앞서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 주민의 식생활 실태를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발표된 국제기구들의 자료들을 통해 김정은 정권에서 아동의 영양 상태는 개선되고 있지만 영양부족의 인구 비율은 오히려 이전 정권에 비해 증가한 모순적이면서 양면적인 영양 상

태도 확인하였다. 북한 주민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첫째, 국내 곡물 생산량, 둘째, 곡물 및 식료품 수입, 셋째, 구매력, 즉 소득 수준, 넷째, 냉장고와 전기밥솥과 같은 가전제품의 보유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앞의 두 요인들은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을 평가할 때 주로 다뤄졌지만, 뒤의 두 요인들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시장화와 계층화라는 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했을 때 구매력과 가구 내 가전제품의 보유가 북한 주민의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 국내 곡물 생산량

우선 국내의 곡물 생산량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2012년 467.6만 톤에서 2016년 482.3만 톤으로 정점에 올랐다가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20년에는 439.8만 톤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은 올해 6월에 유엔에 제출한 VNR 보고서에서 2015년에는 1,147천 톤, 2019년에는 1,486천 톤의 식량이 부족하였으며, 2020년에는 곡물 총생산량이 전년 665만 톤에서 552만 톤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1). 우리 정

부가 추정하고 있는 북한의 곡물 생산량과 북한 정부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곡물 생산량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19년 대비 2020년 곡물 생산량 감소를 고려했을 때 2020년 식량 부족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표 4>에서 보이듯이 지난 5년간의 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에는 벼의 생산량이 다른 종류의 곡물 생산량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옥수수의 경우 과거 5년간 평균 생산량 대비 2020/21년 생산량의 증감률이 0%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벼의 경우는 과거 5년 평균 생산량 대비 2020/21년 생산량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조사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식으로서 쌀의 섭취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벼 생산량의 급감으로 북한 주민의 주식 섭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식생활 수준을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은 작물 중에서 감자의 생산량은 지난 5년 평균 생산량 대비 2020/21년 생산량이 54%나 증가하여 벼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식량 부족을 부분적으로 완화

표 3. 북한의 곡물 생산량 추이

(단위: 천톤)

| 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생산량 | 4,676 | 4,806 | 4,802 | 4,512 | 4,823 | 4,701 | 4,558 | 4,640 | 4,398 |

주: 생산량은 정곡 기준의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생산량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55에서 2021. 6. 27. 인출.

표 4. 북한의 2020/21년과 5년 평균 식량작물 생산 비교

| | 2020/21년 | | | 5년 평균 (2015/16~2019/20년) | | | 증감률 | | |
|---|--------------|--------------|--------------|-----------------------------|--------------|--------------|-----------|-----------|------------|
| | 면적 (천 ha) | 단수 (톤/ha) | 생산량 (천 톤) | 면적 (천 ha) | 단수 (톤/ha) | 생산량 (천 톤) | 면적 (%) | 단수 (%) | 생산량 (%) |
| 가을 작물 | 1,317 | 3.9 | 5,095 | 1,250 | 4.2 | 5,216 | 5 | -7 | -2 |
| (벼) | 470 | 4.5 | 2,113 | 469 | 5.0 | 2,351 | 0 | -10 | -10 |
| (옥수수) | 583 | 3.8 | 2,214 | 535 | 4.2 | 2,225 | 9 | -9 | 0 |
| (기타 곡물) | 65 | 2.5 | 161 | 61 | 2.8 | 171 | 6 | -13 | -6 |
| (감자 ¹⁾) | 34 | 11.0 | 377 | 35 | 7.0 | 244 | -2 | 57 | 54 |
| (대두) | 164 | 1.4 | 230 | 149 | 1.5 | 225 | 10 | -6 | 2 |
| 조기 작물 ²⁾ (겨울·봄 밀, 보리, 감자) | 186 | 2.5 | 466 | 182 | 2.2 | 396 | 3 | 15 | 18 |
| 합계 | 1,504 | 3.7 | 5,561 | 1,432 | 3.9 | 5,612 | 5 | -6 | -1 |

주: 1) 감자의 경우 생체중의 25%를 곡물 생산량으로 한치하여 적용함.

2) 함경 남북도와 양강도에서 주로 재배된 밀과 보리를 일부 포함함.

자료: FAO. (2021).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od Supply and Demand Outlook in 2020/21 (November/October). GIEWS Update. p. 6 table 4.를 이용해 재작성함.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봄철에 수확하는 조기 작물도 지난 5년 평균 생산량 대비 2020/21년 생산량이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식량 부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곡물 및 식료품 수입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의 국내 곡물 생산량만으로는 국내의 식량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따라서 식량의 대외 수입은 식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표 5>는 2016~2020년에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전체 수입 곡물량의 합계를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 최대 규모의 수입량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식량 수입의 양이 급격히 감소하여 전년 대비 약 5분의 1의 규모에 불과하였다. 특히, 쌀의 수입량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2019년에는 쌀의 수입량이 약 7,346만 달러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약 58만 달러에 불과했다.

지난 5년 동안 밀가루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도 주목할 사항이다. 중국에서 수입한 밀가루 규모는 2012년에 약 253만 달러에서 2019년 약 7,317만 달러까지 증가하여 수입한 곡물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쌀과 밀가루의 수입량은 거의 비슷했다. 옥수수에 비해 밀가루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북한 주민의 식생활에서 밀가루 가공식품이나 밀가루를 이용한 음식의 소비가 크게 늘어났을 것

표 5.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연도 \ 품목 | 쌀 | 밀가루 | 보리 | 옥수수 | 대두 | 합계 |
|---------|--------|--------|-------|--------|-------|---------|
| 2016 | 24,845 | 2,536 | 0 | 1,010 | 557 | 28,948 |
| 2017 | 21,361 | 32,623 | 639 | 11,258 | 62 | 65,943 |
| 2018 | 24,657 | 63,047 | 1,003 | 1,138 | 1,015 | 90,860 |
| 2019 | 73,468 | 73,178 | 1,315 | 6,303 | 670 | 154,934 |
| 2020 | 589 | 35,476 | 730 | 361 | 0 | 37,156 |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99에서 2021. 6. 26. 인출.

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 쌀의 수입량은 전년 쌀 수입량의 0.8% 수준에 그칠 정도로 크게 줄었던 것과 달리 밀가루는 전년 대비 약 절반 정도만이 줄어들어 북한 주민의 식생활에서 쌀의 소비 감소로 인한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가루의 소비 감소가 미치는 영향은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곡물 수입 외에도 식료품의 수입 역시 북한 주

민의 식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2017년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로 산업용 기계류, 운송 수단, 철강 및 금속류 제품의 수입이 금지되면서 북한의 수입품목도 큰 변화를 보였다. <표 6>에서 보이듯이 2016년에는 10대 대중 수입품목에 대형 화물차, 합성 섬유, 정유, 휴대폰과 티브이(TV), 타이어 등이

표 6. 북한의 10대 대중 수입 품목 현황

(단위: 백만 달러, HS6)

| 순위 | 2016년 | | 2019년 | | 2020년 | |
|----|-----------|-----|----------|-----|---------|----|
| | 품목명 | 금액 | 품목명 | 금액 | 품목명 | 금액 |
| 1 | 대형 화물차 | 103 | 대두유 | 116 | 대두유 | 52 |
| 2 | 대두유 | 94 | 합성필라멘트직물 | 93 | 밀가루 | 34 |
| 3 | 합성필라멘트직물 | 85 | 정미 | 78 | 사탕수수당 | 29 |
| 4 | 사과 | 81 | 밀가루 | 73 | 기타 담배 | 22 |
| 5 | 경유/윤활유 | 75 | 시계 부품 | 70 | 화물용 타이어 | 16 |
| 6 | 휴대폰 | 59 | 합성염색편물 | 40 | 대두조유 | 13 |
| 7 | 티브이(TV) | 56 | 설탕 | 39 | 글루탐산 | 13 |
| 8 | 태블릿피시(PC) | 52 | 기타 담배 | 38 | 팜유 | 12 |
| 9 | 합성염색편물 | 49 | 곶련 담배 | 36 | 의약품 | 12 |
| 10 | 화물용 타이어 | 43 | 플라스틱 바닥재 | 32 | 곶련 담배 | 8 |

자료: 남북협력실. (2020). 2019년 북한-중국 무역 동향과 시사점. KITA 남북협력리포트. vol. 1. <표 2>와 <표 6>; 남북협력실. (2021). 2020년 북한-중국 무역 동향과 시사점. KITA 남북협력리포트. vol. 1. <표 2>를 이용해 표를 제작함.

주로 포함되어 있었고, 식료품의 경우 대두유와 사과 정도만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9년에는 10대 대중 수입품목에 대두유, 정미, 밀가루, 설탕 등의 식료품이 포함되었고, 2020년에는 대두유, 밀가루, 사탕수수당, 대두조유, 글루탐산, 팜유 등이 10대 대중 수입품목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경 봉쇄 조치로 전년 대비 2020년 곡물 및 식료품 수입량은 크게 감소하였다. 대외 수입 감소는 북한 시장의 공급량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곡물 및 식료품 물가의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북한 주민의 식생활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대부분의 인구가 식량 및 식료품 조달을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물가 상승은 구매력 차이로 인해 계층 간 식생활 불평등을 초래하고 특히, 구매력이 낮은 소득 하위 계층의 식생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다. 구매력

북한 주민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인은 식량 및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이다. 일반 주민에 대한 배급제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은 식량을 비롯해 식료품을 대부분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득이 식생활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표 7>에서 보이듯이 우리 정부가 추정하는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2년 137만 1천 원(남한의 원화 기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146만 4천 원으로 정점으로 찍었다가 대북 제재의 강도가 높아진 이후로는 조금씩 줄어들어 2019년 140만 8천 원으로 추정된다. 소득 감소는 식량 및 식료품의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서의 소득 규모를 조사한 결과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표 7.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추이

(단위: 남한의 원화, 만 원)

| 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국민총소득(GNI) | 137.1 | 137.9 | 138.8 | 139.3 | 146.1 | 146.4 | 142.8 | 140.8 |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31에서 2021. 6. 26. 인출.

표 8. 북한 주민의 월평균 공식 소득과 비공식 소득 추이

(단위: 북한의 원화, 만 원)

| 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공식소득 | 1.7 | 6.9 | 1.7 | 2.5 | 3.3 | 3.0 | 2.3 | 3.8 |
| 비공식소득 | 60.2 | 169.1 | 195.1 | 128.4 | 110.5 | 67.0 | 107.7 | 113.2 |

주: 연도는 북한이탈주민이 탈북한 연도로, 월평균 비공식 소득의 측정 시기의 기준을 탈북 연도로 함.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사회변동조사(2012~2020년)의 각 해당 연도 자료를 이용해 표를 작성함.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다. <표 8>은 북한이탈주민 조사에서 파악한 2012~2019년 북한 주민의 소득 추이이다. 잘 알려진 사실처럼 북한 주민의 소득은 공식 소득과 비공식 소득이 이중적으로 존재한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직장에서 받는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식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실상 생계는 비공식 경제활동에서 획득한 소득으로 유지하고 있다.

<표 8>에서 보이듯이 북한 주민의 월평균 비공식 소득은 2012년 60만 2천 원에서 2019년 113만 2천 원으로 증가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2012년부터 7년이 경과한 2019년에 북한 주민의 비공식 소득은 2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북한 당국은 올해 6월에 유엔에 제출한 VNR 보고서에서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이 2015년 274억 달러에서 2019년 335억 달러로 연평균 5.1% 성장했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6% 성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했

을 때 북한 주민의 소득 증가는 식량 및 식료품에 대한 구매력의 상승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식생활이 개선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라. 가전제품의 보유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북한 가구(household)가 보유하고 있는 가전제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냉장고, 냉동고, 전기밥솥과 같은 가전제품들은 식료품을 보존하고 조리하는 데 필요하며 이러한 가전제품의 활용은 식생활 개선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가구 내 가전제품의 보유가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북한의 중앙통계국(CBS)과 유니세프(UNICEF)가 2017년에 공동으로 전국 규모로 실시한 다중지표군집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이하 MICS)에서 가구별 냉장고, 냉동고, 전기밥솥의 보유율이 <표 9>에서 보이듯이 각각 30.3%, 21.6%, 62.6%로 나타났다.²⁾ 농촌에 비해 도시

표 9. 북한 가구별 냉장고, 냉동고, 전기밥솥 보유율

(단위: %)

| 지역 단위 \ 품목 | 냉장고 | 냉동고 | 전기밥솥 |
|------------|------|------|------|
| 전국 | 30.3 | 21.6 | 62.6 |
| 도시 | 37.7 | 26.8 | 69.7 |
| 농촌 | 18.4 | 13.2 | 51.1 |

자료: Central Bureau of Statistics(DPRK) and UNICEF. (2018). 2017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Survey Finding Report. CBS and UNICEF. p. 18. Table SR.2.2.

2) 김석진은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들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2017 MICS의 통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2~2017년에 중국에서 수입된 냉장고, 냉동고, 전기밥솥의 수와 북한 가구 수를 대비하여 산출한 각각의 보유율이 각각 5.5%, 14.3%, 55.3%로 나타났으며, 특히 냉장고의 보유율은 MICS의 30.3%와 매우 큰 격차가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이중 집계 가능성을 제기했다(김석진, 홍제환, 2019).

의 보유율이 더 높아 도농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1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북한사회변동 2020'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별 냉장고와 전기밥솥의 보유율은 각각 35.8%, 59.6%로 나타났다(김학재 외, 2021).

가전제품의 이용은 전기 공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계은행이 추정하는 북한의 전기 이용률은 2017년 기준 43.9%로 북한은 만성적인 전기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 전기 이용률이 60% 이하인 다른 개발 도상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북한 가구의 가전제품 보유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김석진, 홍제환, 2019). 그 이유는 국가가 공급하는 전기 부족량을 각 가구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여 전기를 보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20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2.5%가 가구 내 태양광 패널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김학재 외, 2021). 따라서 북한 가구의 자체 발전 체계 구축으로 인해 앞으로 북한 가구의 가전제품 보유율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그로 인해 북한 주민의 식생활 개선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4. 나가며: 제2의 '고난의 행군'이 현실화되지 않으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식량 부족을 인정했다. 북한 당국은 자연

재해와 영농 물자의 부족, 낮은 수준의 기계화, 경작지 부족으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연재해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경제 및 농업 부문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들로 상존하는 요인들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식량 및 식료품의 대외 수입 증가, 주민들의 소득 증가로 인한 구매력 증가, 식생활과 관련된 가전제품의 보유율 증가 등이 국내 곡물 생산량의 감소에 따른 식량 부족의 영향을 상쇄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2020년부터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급격히 불안정해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국경 봉쇄라는 초강수의 비상방역조치를 선택하였다. 이로써 곡물 및 식료품의 대외 수입은 물론 영농 물자 수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대외 무역이 급감하여 시장이 위축되고 물가 상승으로 주민들의 구매력도 감소하여 그 결과 상당수의 북한 주민의 식량 접근성이 하락하고 있다. 2020년과 같은 대내외의 환경은 올해에도 개선되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곡물은 물론 필수 식료품(식용유, 설탕, 조미료 등)의 수입 감소로 국내의 물가가 크게 상승하여 북한 주민의 식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올해 4월에 개최된 제6차 당 세포비서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고난의 행군'의 길을 갈 것을 결심했다고 언급하였고, 6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현재 식량이 부족하다고 직접 언급해 올해 북한 주민의 식생활이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 1월에 개최된 8차 당대회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 노선을 기반으로 한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채택하였으며, ‘수입병’과 같은 대외 의존 현상의 근절을 위한 대중적 캠페인과 국산화 정책 추진 등 폐쇄적인 대외 경제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적 상황에서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고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또다시 북한 전역을 강타한다면 북한 주민의 식량안보는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 또한 최악의 경우에는 그들의 최고지도자가 공포했듯이 다시 ‘고난의 행군’의 참혹한 길을 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최근 남한 정부는 물론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의 대외 행보와 코로나19의 비상방역의 장기화에 대한 대비를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식량 불안정과 영양 상태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려면 외부의 식량 지원뿐만 아니라 국경 봉쇄 해제의 조건이 되는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 형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식량과 코로나19 백신의 대북 지원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

참고문헌

권태진. (2021). 북한의 농업 및 식량 상황: 2020년 동향과 2021년 전망. KDI북한경제리뷰, 5월 호.

- 남북협력실. (2020). 2019년 북한-중국 무역 동향과 시사점. KITA 남북경협리포트, vol. 1.
- 남북협력실. (2021). 2020년 북한-중국 무역 동향과 시사점. KITA 남북경협리포트, vol. 1.
- 김석진, 홍제환. (2019).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통일연구원.
- 김학재, 정은미, 이종민, 박상민, 이혜원, 김유연, …, 최현정. (2021). 북한사회변동 202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천경효, 강채연, 박상민, 이혜원, 정은미, 임경훈, 조용신. (2020). 북한사회변동 2019.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헤이젤 스미스. (2021). 대북제재와 식량불안: 향후 국제사회의 공공정책 방향은? KDI북한경제리뷰, 5월 호.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DPRK) and UNICEF. (2018). 2017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Survey Finding Report. CBS and UNICEF.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21).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 FAO. (2021).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ood Supply and Demand Outlook in 2020/21 (November/October). GIEWS Update.
- FAO, IFAD, UNICEF, WFP, WHO. (2021).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1.
- WFP, UNICEF and WHO. (2013).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

세계농업기구 통계. <http://www.fao.org/faostat/en/#country/116>에서 2021. 6. 25. 인출.

통계청 북한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55에서 2021. 6. 27. 인출.

통계청 북한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99에서 2021. 6. 26. 인출.

통계청 북한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B4에서 2021. 6. 25. 인출.

통계청 북한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ZGA31에서 2021. 6. 26. 인출.

Dietary Life of North Korean People

Jeong, Eunme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During the nine years of Kim Jong Un's regime, the dietary life of North Koreans have improved quantitatively and remained stable, and this change is able to be indirectly confirmed through a survey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domestic and foreign statistics.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eat three meals a day, and rice and meat consumption gradually increased. Although the domestic grain production in North Korea is not high enough to meet domestic demand, the increase in imports of grains and food, the increase in market purchasing power, and the possession of household appliances have had a positive impact on stabilizing the diet of North Koreans.

However, since 2020, North Koreans' diet has been unstable and, as the North Korea authorities have officially said, they are suffering from food shortages this year. North Korea's food security has been vulnerable to the effects of exogenous variables such as natural disasters and the pandemic of COVID-19, and the sharp decline in foreign trade due to border blockade is a major factor in the instability of North Koreans' diet. In order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food to North Koreans, it is necessary to provide food support as well as COVID-19 vaccine support.